

한성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다

학생 참여와 정족수 충족이 관건

오는 22일 운동장에서 한성대 전체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열린다. 오후 4시부터 운동장에 모인 인원을 세어 정족수 700명을 채우면 학생총회가 바로 개최된다. 이번 학생총회에는 국문과 문선, 학생들의 자유 토론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으며,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낙산의 메아리에 공지될 예정이다.

학생회는 이번 학생총회 성사를 위해 1학기부터 홍보활동을 지속해왔다. 학기 중에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동제에는 학생총회 홍보와 관련된 무대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총회 계획은 지난 8월 18일에 있었던 확대간부수련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학생회 구성원 중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일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들이 참여한 총회추진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총추위는 학생총회와 관련된 홍보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총회에서 논의될 대표적인 쟁점은 등록금 문제, 학생요구안 문제, 적립금 사용처 공개 문제이다. 등록금 문제의 경우, 학교 측에서 추진사 업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금

2.6%를 인상했다. 하지만 총추위측에서는 "추진 계획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등록금을 올렸음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마땅한 결과물이 없으니 등록금 인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경렬(한국어문 4)한국어문학부 학생회장은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과 같은 다른 이의 손에 맡겨 둘 수는 없다. 학생들이 이점을 알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립금 사용처 공개는 '적립금 사용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회의 입장과 '합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립대학 중 어느 한곳에서도 적립금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심각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범석(경제 3)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적립금 사용처 공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우리학교 재단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만큼, 적립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적립금 사용처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적립금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요구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학생회는 1학기부터 학생 지원팀에 학생요구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학생총회의 힘을 빌려 학생요구안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이다. 김태성(정보 4)총학생회장은 "학생요구안은 학생회 당선 공약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학생회가 학교 측과 여러 가지로 학생요구안 성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학생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생총회는 많은 학생들과 학교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있을 학생활동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경렬 한국어문학부 학생회장은 "학생회 간부들이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는 이유는 이번 시도가 성공하면, 이후의 학생활동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총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올년에 비해 2.6%를 찾아서..
이번 등록금 받아드립니다!!!

9월 22일 오후 4시 대 운동장

우리를 위한 학생총회!

▲전체학생총회 리플렛 중 일부 사진이다.

삼 학 승

얼마나 적극적인 소통이 될 것인가

요즘 각종 매체마다 등록금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며칠 전에는 방송 뉴스를 통해, OECD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보았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소식이다. 등록금은 두 번째로 비싼데 비해, 정부 장학금 비율은 OECD 평균의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학자금 대출 비율 역시 OECD 평균에 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하지만 조금은 희망적이라도 한 소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학업성취도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함에도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만큼은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직 속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들인데 정부나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얼마나 좋을지.

물론 등록금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른 만큼, 국회에서도 등록금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고, 내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학기에 학생총회를 성사시켜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낸 학교도 있고, 그 흐름을 따라 이번 학기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매년 '고연전'을 개최하는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들은 올해 열리는 '고연전'을 이색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고연전'은 오는 23, 2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지만, 두 학교 총학생회는 이에 앞서 19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반값 등록금 고연전'을 열어 대학생들의 절박한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뿐만 아니라, 오는 22일, 우리학교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총회를 성사시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로 너나 할 것 없이 떠들썩한 요즘, 7천 한성인들은 등록금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학생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늘 편집국장

2학기 볼거리 '현무제' 23일 열린다

다채로운 행사, 적극적 참여 기대돼

오는 23일 동아리연합회·공과대 학생회·인문대학생회가 공동주최하는 현무제가 열린다. 원래 현무제는 동아리축제인 웅비제였지만, 작년부터 공과대학생회가 함께 참여해 현무제로 확대되어 지난 해 첫선을 보였다. 올해 현무제에는 예년과 달리 인문대학생회도 합류하였으며 낙산제전은 열리지 않는다.

무대행사는 오후 5시 클래식기타 동아리 한음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개회식과 탈춤, 들불, 한성가요제, 여대 댄스 배틀, 트라이엑스, NOD, 왕산악, 초청가수 순의 무대공연이 예정이 있을 예정이다.

한성가요제는 공과대학생회가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재·휴학생은 개인 혹은 6명 이내의 팀을 이뤄 공과대학생회로 지원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개별적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리며 심사는 청중평가단, 각 단대 학생회장, 공개기구장의 점수를 합산하여 치러진다. 1등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며 본선진출자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배재현(정시 2)공과대학생회장은 "다 같이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공과가요제'에서 '한성가요제'로 이름을 바꿨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즐거워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대 댄스 배틀에서는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 총 다섯 개 여대에서 초청받은 댄스동아리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배틀을 벌인다. 한편 초대가는 합합듀오 '리쌍'으로 결정됐다.

무대공연 외에도 타로카드, 캐리커처, 트램펄린, 이종 동물원, 프리마켓 등의 다양한 부스행사가 있다. 또 학교 이곳저곳에서 현무제 홍보를 하는 피에로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야구 동아리는 그릴방 앞에서 구식을 축정해주는 부스를 준비 중이며, 미술동아리 유채꽃은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한컴퓨터, 유스호스텔, 극예술연구

회, 탈춤과 공과대학생회는 주점을 열 예정이다.

인문대학생회는 잉글리시 라운지에서 라운지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파티는 가면무도회 컨셉으로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입장하는 사람에게 팔찌가 하나씩 배부되며 각 팔찌에 쓰여 있는 단어와 짝이 되는 팔찌를 한 사람을 찾으면 상품이 주어진다. 가면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파티에 입장할 수 없으며, 가면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문대 각 학과에서 판매하는 가면을 구입하면 된다.

박아름(영어영문 3)인문대학생회장은 "라운지 파티의 음악이 도서관

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현무제가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환승(기계 3)동아리연합회장은 "다른 무대에 동아리의 공연이 묻히지 않도록 최대한 공연 시간을 보장하려 노력했다"며 "현무제가 동연과 공대의 축제에서 우리학교 학생 모두의 축제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많이 준비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 gyojyoung@hansung.ac.kr

2 사이버 강의 고가 매입 합니다

3 학생총회는 시작일 뿐 -티대학 학생총회 그 후

6 별 집어삼키는 탐욕의 블랙홀

8 예술과 생활용품은 종이 한 장 차이

지면안내 <http://twitter.com/hansungnews>

학생회소식

총대의원회 : 9월 20일 12시 DLC에서 대의원총회

학생총회추진위원회 : 9월 15일부터 학생총회 홍보 티셔츠 단체착용 및 강의 선전 활동

임	사령	면
편집국장 김하늘(한국어문 4) 정기차 오지영(의생합 1)	편집국장 이상미(매디 3) 문화부장 이예진(무용 4)	수습기자 박현우(지정 1)

Journalist!

記者!!

기자!!!

한성대신문

The Hansung University News

기자를 막연하게만 꿈꾸고 있습니까?
한성대신문의 기자가 되어
당신의 글로 세상을 표현하세요!

모집기간: ~ 9월 30일(금)
대상: 우리학교 재학생 1, 2학년
문의: 010-4534-8682
*매일 활동비와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사이버 강의 고가 매입 합니다'

사이버 강의 매매 급증 예비수강신청 등 대안 필요해

2학기 수강신청을 전후로 낙산의 메리(이하 낙메)에 한양 사이버 강의를 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그간 사이버 강의에 관련한 글이 대부분 질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들은 3~5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

매매 글을 게시한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시도해 본 결과 이들은 대개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다. 이들을 요청한 한 학생은 "졸업까지 3학점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 교과목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수님께 어떻게 사정도 해봤으나 규정상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다."며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졸업을 못 할지도 모르는데 사제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처지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정영만(학사지원팀)팀장은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지만 낙메에 공개적으로 강의를 사고파는 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다음 학기부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관리할 것이다."며 "적발 시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또한 생각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강의의 정원을 확충할 것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

위와같은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신청 장바구니'를 도입



하지는 의견도 있다. 수강신청 장바구니 인터넷 쇼핑의 장바구니 기능처럼 신청희망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시간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비수강신청' 제도도 있다. 이는 사전에 과목 수요를 미리 파악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가톨릭대, 서울예대, 청주대 등에서는 이미 예비수강신청 제도를 시행 중 있다.

최수영(의생활 1)학생은 "친구가 수강신청에 실패해서 사과대의 불계 학 과목을 듣고 있다. 이를 매우 힘들어 한다."며 "예비수강신청 제도를 통해 인기 있는 과목의 인원을 확충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영만 팀장은 "우리학교도 예전에 예비수강신청을 시행했던 것

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미 협의된 강의실 구성을 짧은 시간 안에 변경하려면 여러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학교도 인원이 많이 몰리는 과목은 통계를 내서 강의시간표에 반영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반반을 늘리기에 강의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야간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야간 반반을 늘리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영만 팀장은 "간혹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며 학사지원팀에 찾아오는 학생이 있다. 마침 친분이 있는 교수님께서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무사히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낙산의 메리보다 학사지원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취업정보의 장

취업·창업 페스티벌 열려

취업·창업지원팀의 주최로 한성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창업 Festival' (이하 취업·창업 페스티벌)이 지난 15일~16일 양일간 미래관 지하 1층에서 열렸다.

오진형(취업·창업지원팀)팀장은 "하반기 기업 채용시기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등의 행사를 계획했다"며 "창업에 성공한 CEO들의 특강을 준비해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피드백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취업·창업 페스티벌의 세부 행사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아디다스, 대상그룹 등의 채용설명회가 있었으며 창업특강으로 '이형곤의 Yes Leaders', '중기청 이범선 주무관의 창업특강' 등이 열려 학생들에게 취업·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문소연(경제 4)학생은 "아디다스에서는 경력 사원만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외국계회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채용설명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채용설명회와 창업특강 이외에도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과 인사담당자가 전하는 실전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돼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졸업을 앞둔 서현영(정보 4)학생은 "취업을 앞둔 준비해서 나쁜 건 없다. 3학년 때부터 취업 행사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취업준비를 해나가길 바란다"며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4학년이 되어 취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진형 팀장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의 취업·창업 페스티벌도 확대하여 취업·창업 정보를 일주일동안 알아볼 수 있는 (가칭)취업·창업 행사도 구상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취업·창업 행사에 많이 참여해 취업의 문을 뚫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부



▲ 지난 15일 취업·창업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간추린소식

제12기 해외봉사단 모집

오는 28일~30일 삼 일에 걸쳐 제12기 동계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며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봉사내용은 교육봉사 및 노력봉사 두 부문으로 나뉜다.

이미화(학생지원팀)팀원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며 "태권도 유단자, 사물놀이, 부채춤,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책자편집디자인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발에 유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 해외봉사단 기 참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참가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한성공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봉사시간, 어학성적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파견 국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파견 기간은 동계 방학기간 중 약 14일 이내이고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Disney College 참가자 선발

대외협력팀에서 오는 20일까지 2012년 1학기 'Disney College Program' (이하 디즈니 대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디즈니 대학 프로그램은 레저·관광에 관련된 경영학 강좌 수강과 디즈니 공원 내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파견 기간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정도이다. 디즈니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12학점을 인정해 주며 전공 인정도 가능하다. 공원 내 업무는 개인의 적성, 어학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김일환(대외협력팀)팀원은 "미국의 대기업에서 인턴십을 수료한 이력은 관광·레저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뉴질랜드·말레이시아 어학연수 모집

대외협력팀에서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교유대학 어학프로그램 파견자를 각 대학별로 10명씩 모집한다. 파견자는 15주간 각 학교에서 어학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교양 15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지원자는 학점 2.5 이상에 파견지점을 기준으로 본교에서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하며, 교환학생 파견경험이 없어야 한다. 영어캠프 및 해외봉사단 참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한성공지에 올라온 첨부서류 및 사진을 우편으로 3층 대외협력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일환(대외협력팀)팀원은 "지원자격에 어학 성적 부분을 제외하고 어학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없앴다"며 "개인적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7회 공학경진대회 개최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낙산관 체육관에서 제7회 공학경진대회가 열린다. 공학경진대회에는 공과대학의 6개 학과에서 작품 27개 팀, 논문 2개 팀이 참가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지난 9일 공과대학 전공 교수들이 평가한 예비 심사에서 통과한 작품들로,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윤희(공학교육개발센터)연구원은 "이번 공학경진대회는 작년보다 더 많은 팀이 출품했다. 작품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참여도 많았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개막식은 첫 날 오후 3시에, 대회 시상식은 다음 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오후 6시까지 작품 전시는 계속된다.

동정란

정호섭(역사문화학부)교수 정 교수는 지난 7월 25일 학술서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를 서경문화사에서 출간했다.

황진수(행정학과)교수 황 교수는 지난 자로 8월 31일 정년퇴임을 했다. 황 교수는 그동안 본교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경주 위덕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상혁(언어교육원)교수 이 교수는 지난 8월 24일~25일에 걸쳐 캐나다 밴쿠버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개최된 국제고려학회 창립 20주년 제 10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포럼에서 '통합 국어학사 서울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 논문 발표에 참여했다.

권장도서 선정 기념 제1회 독서경진대회 개최

오는 11월 2일 학술정보관 일반열람실 5층에서 제1회 독서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성 권장도서 66선'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로, '한성 권장도서 66선'은 지난 5월 18일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처음 공지되었다.

'한성 권장도서 66선'에 관련해 김양진(학술정보팀)팀원은 "한성학원의 설립 6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성 권장도서 66선'을 기획했다. 선정된 도서들은 3월부터 단과대학 및 교양학부의 교수님들에게 단과 단위로 각 30권씩 150권을 추천받아 구성했다."며 "이중 66권을 추천하기 위해서 중복된 책들을 배제하고, 간행물 위원회 등의 추천도서와 겹치는 책들을 우선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도서 선정 기준에 대해 "각 단과대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권장도서 중에서도 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도서들을 우선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당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주목할 만한 각 분야의 고전들에 주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장 도서의 선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 이번 권장도서 선정에 대해 김 모한(국어문과4)학생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같은 과학 관련 책들은 전문 지식 없이는 거의 읽을 수 없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김양진 팀원은 "이번 권장도서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을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데 있다. 어려운 책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읽

을 필요는 없다. 다만 책을 가운데 한 권이라도 만족스럽게 읽은 책이 있다면 권장도서목록을 만든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권장도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독서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은 30일까지며, 권장도서 66권 중 대출빈도가 가장 높은 10권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선정된 10권은 다음과 같다.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스토예프스키 저, 『연금술사』/피롤로 코엘료 저, 『호밀밭의 파수꾼』/제롬 데이비스 셀린저 저, 『엔트르피』/제레미 리프킨 저, 『홍콩.교』/제레미 다이아몬드 저, 『국부론』/애덤 스미스 저, 『역사란 무엇인가』/에드워드 H. 카 저,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저

박종민 기자 jongmini@hansung.ac.kr



역시 추석엔 송편이지!

지난 6일 한가위를 맞아 우촌관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운송편 행사에서 정주택 총장이 외국인 학생에게 떡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한성 권장도서 66선』 기념 제1회 독서경진대회

한성학원 설립 66주년을 맞이하여 한성인의 독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성 권장도서 66선』을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제1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울 기회가 될 독서경진대회에 관심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독서경진대회 일정

- 응시 자격 : 한성대 재학생
- 접수 기간 : 2011년 9월 14일(수) ~ 30일(금)(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접수)
- 대회 개최 일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후 4시
- 대회 개최 장소 : 학술정보관 일반열람실 5층(제3열람실)
- 수상자 발표 : 2011년 11월 7일(월)

■ 독서경진대회 내용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66선 중 「지정도서 10선」에서 출제
- 시험 유형 : 주관식 단답형
- 「지정도서 10선」 및 「시험유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 상장 및 상품

- 대상 1명 : 상장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
- 최우수상 2명 :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우수상 3명 :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장려상 7명 :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한성 권장도서 66선 목록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 위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생총회는 시작일 뿐 - 학생총회 그 후 이야기

“학생들이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야 학교가 바뀔 것”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성사된 대학교들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6년만의 학생총회 성사로 등록금 동결에 성공한 경희대이다. 그 밖에 고려대, 이화여대, 인천대, 덕성여대, 서강대 등 전국 십여 개의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성사시켜 눈길을 끌었다.

학생총회란 대학 학생회 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일정 정족수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학교측에 자신들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이다. 학생총회의 성사는 학생들이 학내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비슷하다. 등록금 문제와 학교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국·공립 대학 법안화 문제 등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다.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이후 각 대학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생총회 이후 등록금 문제 등 굵직한 주요 안건부터 해결하고 기타 복지 문제 등을 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희대는 등록금을 인하하고 등록금 및 수강신청 문제에 관한 TF팀(Task Force) 태스크포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을 꾸려 학생과 학교측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박병원(경희대 총학생회)사무국장은 “총회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압박이었고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며 “단순히 등록금 문제 뿐 아니라 수업권에 관한 문제다.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학교에 요구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



▲지난 3월 경희대 학생총회가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모습이다.

고 있다. 등록금 및 수강신청 문제에 관한 TF팀을 꾸리고 학생이 참여해 구성원 모두가 불신과 갈등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인천시 송도캠퍼스 신축 비용 1,009억원 즉각지원, 법안화 요구안 등을 큰 골자로 학생총회를 진행했다. 전문대와 통합해 근본적인 공간 확보를 대학본부 및 인천시와 협의해 왔으나 해결이 지지부진해져 학생측은 총회를 개최했고 이후 시장 명의로 1,009억을 활용해 캠퍼스를 증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처리되지 않은 실무적 문제로 학생대표들과 다시 논의 중이다.

인천대의 경우는 학생총회를 학생들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4년 처음 총회를 진행한 이후 매년 학생들의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과 복지시설 면에서 학생총회가 이뤄낸 부분이 많다. 특히 캠퍼스 이

전, 전문대와 통합, 국립 법안화 전환 등의 내용을 학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박동선 인천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적극적 의견표출이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변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학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시립대 특성상 인천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학교가 못하는 부분을 학생들이 나서서 풀어나갈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에는 인천시청으로 찾아가 학생총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덕성여대는 올해 성사인원보다 200명이 넘는 선 규모로 학생총회가 성사된 이후 등록금 인상 철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교 및 학생 측 동수구성, 임시이사체제, 동아리 연습실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은 2학기 장학금으로 처리됐고, 학교와 학생, 외부인사가 3:2:2 인원은 학교와 학생측이 같은 수로 구성된 내년

등심위부터 적용된다. 재단문제 역시 학생총회 때 공론화한 결과, 구재단을 몰아내고 임시이사체제로 전환했다. 박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나 요즘은 학교에 돈내고 다니는 수혜자라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 학생총회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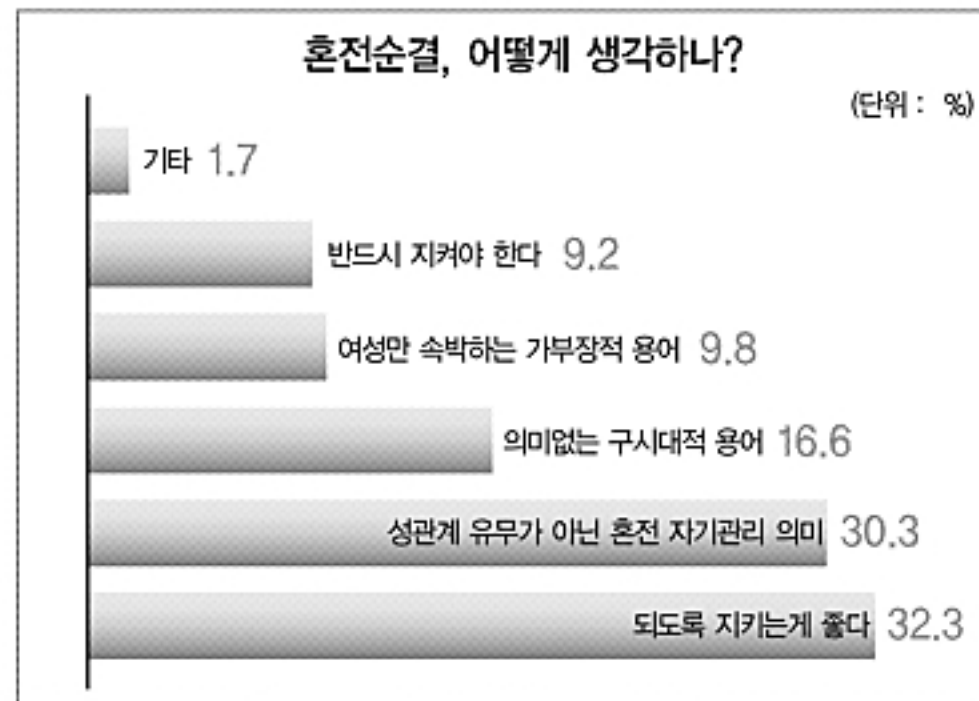
학생총회를 성사한 대학의 대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총회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인천대의 경우 ‘릴레이 행동전’을 계획해 시정 앞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덕성여대는 등록금 문제를 합의를 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학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다.

박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총회 안건을 만들며 천막농성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학생들의 힘으로 차린 천막이라 학교 측에서도 천막을 함부로 치우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이 뚝뚝이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학생총회가 끝나고 모듬게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계속 요구하고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야 학교가 바뀔 것”이라 전했다.

박동선 인천대 총학생회장 역시 “학생총회 이후 모든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후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며 “지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지킬거라고 제시해줘야 하고, 어디까지 와야 이 행동을 멈출 것인지도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로 본 대학사회

대학생 70%, ‘혼전 성관계 OK’



대학생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10명 중 7명이 ‘혼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 715명에게 ‘대학생 성의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73.8%, 여학생의 67.3%가 ‘혼전이라 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답했다. ‘혼전에는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으며, 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16.2%)보다는 여학생(18.0%)이 더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12.6%의 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9.2%)”와 “되도록 지키는 편이 좋다(32.3%)” 등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약 42%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 대학생의 약 1/3은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책임감’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즉 ‘혼전순결은 단순한 성관계의 유무가 아닌 혼전 자기 권리의 의미’라는 응답이 약 30.3%를 차지했다. ‘의미 없는 구시대적인 용어일 뿐(16.6%)’, ‘남성에게는 관대하면서 여성만 속박하는 가부장적 용어(9.8%)’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박 모(매대 2)학생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은 확실히 해야한다”며 “하지만 등거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모(무용 4)학생은 “혼전관계 역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남자는 육체적인 사랑으로 위안을 받고 여성은 정신적인 사랑으로 위안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통한다면 관계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돈독히 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또 김 모(미디어콘텐츠 1)학생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합의하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엄 모(미디어콘텐츠 2)학생은 “나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친구와 마음이 맞다면 가능한 일이다. 동거의 문제도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미(학생생활상담소)상담사는 “피임도구의 발달, 의학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원인”이라며 “당시는 임신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녀의 성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차를 보이는 것”이라며 “여성의 경우는 피임기구가 발달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남성들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미 상담사는 “사랑은 수용과 기쁨을 전제로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측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성행위는 상대방의 성가치관, 신념을 확인하고 존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신뢰,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 타대학 엿보기-속명여대

대학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다

2009년도에 실시한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학교 학생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지도교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입학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지도교수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은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속명여대는 교수와 학생이 멘토-멘티로 연결되는 ‘평생지도교수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속명여대 송유진(학생문화복지팀) 팀원은 “평생지도교수제는 학생이 교수님과 학교생활, 진로, 취업 등의 상담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시스템이

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휴학생, 졸업생까지 모두 멘티에 포함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도를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의 지도교수제와 평생지도교수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1전공에 한해 학생이 원하는 교수님을 멘토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명여대 교수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평생지도교수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신입생은 입학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1인 1멘토를 선택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임의로 지도교수를 배정해준다. 후에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지도교수를 변

경할 수 있다. 송유진 팀원은 “학생이 직접 멘토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서 교수님이 안식년을 가져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학생이 성장한 기록이 모두 남게 된다”며 “스승의 날에는 멘토링 데이트라 하여 강의실 밖에서 사제 간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명여대 양지정(21) 학생은 “한 교수님과 상담을 해봤는데 ‘다른 교수님 멘토로 지정해도 좋으니 꼭 평생지도교수제를 이용하라’며

적극 권장하셨다. 상담을 신청해도 시간 맞춰 연구실에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온라인 상담은 그런 부담이 없어서 좋다. 간혹 너무 소식이 없다면 멘티에게는 교수님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무용과의 한 학생은 “지도교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상담을 신청한 적은 없다. 상담을 신청해야 할 필요를 아직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평생멘토로 학생과 교수가 더 가까워지면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도 좋을 것 같다. 우리학교도 한번쯤 도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대학만평

권연오(애니제움 4)



〈졸업앨범 추가촬영 안내〉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졸업앨범 촬영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재촬영을 원하시는 학우님을 대상으로 추가촬영을 진행합니다. (재촬영인경우, 재촬영이라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일시 : 9월 24일(토), 26일(월), 27일(화) (총 3일)
오전 11시~오후 5시 (24일은 4시까지 촬영가능)
장소 : 창의관 1층 소강당
내용 : 개인학사모/프로필 촬영, 야외 프로필 촬영, DVD 촬영

- * 촬영기간 내에 편하신 시간에 맞추어 오시면 됩니다.
- * 추가촬영 특성 상 조별 그룹사진 촬영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문의사항이 있으면 02)760-4105로 전화주시거나 평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사이에 창의관 1층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졸업앨범 환불신청 안내〉

- *1학기에 이미 졸업앨범을 촬영하신 학우님들은 앨범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대상 : 8학기 이상 등록하신분 (4학년 1,2학기 모두 등록하신 분)
- *일시 : 12월 7일(수) ~ 12월 16일(금) 오전 11시~ 오후 7시 (기간외에는 환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우천관 3층 무인발급기에서 4학년 1,2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한 후, 학번과 연락처 기입 후 제출
- *장소 : 창의관 1층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 *문의사항 :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760-4105 / 졸업준비위원장 (010-4731-1933)

안철수 신드롬과 흔들리는 한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투영된 것

지난 8월 현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윤여준씨가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론에 알리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 지지를 조사에서 36.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당과 야당 후보들을 눌러버렸고, 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안철수 자신이 출마를 거부하면서 일단락 되긴 했으나, 이후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효과', '안철수 광풍'이라는 말이 방송뉴스, 신문, 인터넷 등 곳곳에서 사용되었다.

안철수는 벤처 사업가, 대학 교수 등의 직업으로 이미 각계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격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대선 후보, 시장 후보 등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여당과 야당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음 대선과 시장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전문가들은 안철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만약 여당과 야당 중 한 당이라도 현 정치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안철수의 시장 출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당정치 자체가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안철수 신드롬'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을 둘 다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이 30%대에 진입했다는 사실 역시

안철수 열풍의 직접적인 이유가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임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질타가 쏟아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진행된 방송좌담회에서 이명박 현 대통령은 안철수 신드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 정치권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변화유구가 아마 안철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이것을 여러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을 정치권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결국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 대한 질타와 분노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올해 초 대학생들의 집회와 총회를 불러일으켰던 '반값등록금 문제'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전면무상급식 문제'가 있다. 전자의 경우 여당은 소극적이고 차등적인 등록금 지원을 주장해 불의를 일으켰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 섰지만, 현실성이 없어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어중간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중도와 협상 없이 협의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주민투표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이 문제 역시 제대로 된 해결을 보지 못했다.



▲최근 안철수의 시장 출마 가능성이 많은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투표가 진보와 보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오점까지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했다.

이런 사건들은 문제의 해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양상만 낳았다. 시끄럽게 일을 벌여놓았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주민투표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

지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안철수 신드롬'이 발생한 것이다.

이대통령의 말처럼 안철수 신드롬은 국민들의 변화요구가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권은 국민들의 요구처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가능성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태가 계속 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실체한 국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의 단초는 전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성공적인 대안'에 있다.

백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그린 액티브

디지털 시대의 뒷모습, 전자쓰레기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 닥친 2009년 12월까지만 해도 78만 명이었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미 1천500만 명을 돌파했다. 2년 사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으로 바꾼 셈이다. 한편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전국 아날로그 TV방송이 전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종류나 업그레이드된 기종의 전기전자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기존의 제품들은 곧바로 전자쓰레기로 둔갑한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의 속도는 실로 엄청나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환경문제도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다.

전자폐기물 혹은 전자쓰레기(e-waste: electronic waste)는 그 엄청난 양과 유해 유독성 성분이 문제가 된다. 과학문명과 산업의 발달과 함께 현대인들은 편리를 위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 각종 전자제품에는 약 1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다. 컴퓨터나 TV 한 대에 함유된 평균 납 함량은 2-4kg 정도이고,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과 같은 중금속들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될까? 전 세계에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은 한해 5천만 톤에 이른다. 매년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자폐기물을 화물차에 실어 연결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 이 중 과반수는 중국이 나인도, 나이지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완전히 상실한 '실체한 국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의 단초는 전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성공적인 대안'에 있다.

이렇게 수출된 전자폐기물들은 영세한 재활용업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열악한 처리과정으로 옮겨간다. 폐기과정에서 나온 중금속과

유독성 강한 화학물질들은 인근 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노동 착취에서부터 작업자들의 건강문제까지 디지털 시대의 뒷모습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쓰레기문제는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고 덜 유해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거나(배기물부담금 제도, 1993년 시행), 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03년 시행)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이 제품생산과 시장에 보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다.

첫째, 덜 쓰고 덜 버리는 일이다. 전자제품을 바꾸기 전에 한 번 생각하자.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아닌지, 그래도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까? 폐기전자제품을 배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구형 등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로 내고 배출하는 방법,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 대리점에 회수요청을 하는 방법, 재활용 가게나 재사용업자들에게 수리나 재판매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생산자에게 연락해보면 된다. 보상 회수나 수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둘째, 현명한 구매자가 되는 방법이다. 새로 제품을 살 때부터 오염물질을 덜 발생시키는 제품인지,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제품인지,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제품의 처리과정이 어떠한지, 친환경 기업인지 꼼꼼히 알아보자. 모든 환경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전자폐기물의 문제는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임을 잊지 말자. 거침없이 바꾸기 전에 우리 세대의 '뒷모습'을 떠올려보자!

글 · 정미경 (사)환경교육센터 연구실장

세상속 우리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의 나우정씨를 만나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 사람, 만족감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 이하 카라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활동가 나우정(동국대 경찰행정학과)씨를 만나보았다. 그는 동물을 좋아하며 '복덩이'란 한 살짜리 강아지를 키우는, 겉보기엔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평범한 대학생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스펙을 쌓는 여학 공부도 자격증을 따는 공부도 아닌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동물 보호법 개선 등의 일을 돕는 것이다. 더불어 대학가에도 동물 보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학생 연합 동아리 'Animals'를 만들어 1기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예전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동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곧 '카라'라는 시민단체를 알게 되어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며 활동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유기견센터에서 다친 동물을 치료하기도 하고 먹이도 주며, 해외의 동물보호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그는 육선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강아지 카테고리 밑에기도 했다. 그는 "오픈마켓에서 사람들이 강아지 카테고리를 통해 쉽게 강아지를 살 수 있게 되자, 자신이 강아지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진지한 고민없이 충동적으로 강아지를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 때문에 강아지가 병이 들거나, 성장해 몸집이 크면 밖에다가 버리는 일이 많아져 더 많은 유기견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픈마켓에 예전 카테고리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잘 통하지 않자 해외의 동물보호 단체와 연계하여 카테고리를 빼는 일을 성공시키는데 힘썼다.

그는 "우리사회는 아직 동물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미약한 수준이다"고 말한다. 동물농장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황구 사건은 물론, 지난 8월 18일에는 '소망이'라는 강아지가 광화문에서 성인 남성 두 명에게 40분간 들뜰매질을 당해 다친 일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때문에 그는 "체계적인 변화, 즉 사회 인식과 법 제도의 개선이란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리사회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은 심리적 만족감을 주었고, 좋은 사람들도 알게 해주었다. 또한 소위 스펙의 하나인 봉사시간도 저절로 생겨났고, 외국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한 번씩 활동과 관련 활동을 통해 사무원 능력도 생겨났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으시면 육군모집에 대한 지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년 학사장교 모집

매년 9월말 전역에서 6월말 전역조정으로 취업에 유리!(입대일 변경 : 6월 → 3월초)

국가방위의 중심은 육군
The Central Force for National Defense

지원자격

- 연령 : 입관일 기준 만 20~27세(예비역 : 30세 이하)
- 학력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지원서접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접수기간

- 2011. 8. 1(월) ~ 9. 23(금)

선발절차

- 1차 선발 : 필기고사 + 서류전형
- 2차 선발(최종) :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입관 후 3년(장기 또는 복무연장 지원 가능)

대우 및 특전

- 매년 9월말 전역에서 6월말 전역조정으로 취업에 유리
- 대학교 재학중에는 학업에만 전념
- 본인 희망시 복무연장 / 장기복무 지원 가능
- 국내 외 민간 대학원에 국비 장학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 군복무간 복지혜택 제공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학군단
- 인사서령부 선발담당관 : 02-505-7143, 042-550-7143
- 육군대표전화 : 1588-6953(육군으로 오심)
- www.goarmy.mil.kr(육군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
전국대표: 1588-6953

별 집어삼키는 탐욕의 블랙홀

초대형블랙홀부터 마이크로블랙홀에 이르는 블랙홀의 모습

최근 네이처에 실린 논문 한 편이 화제가 됐다. 지구에서 39억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형블랙홀이 별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였다.

엄밀히 따지면 '블랙홀을 관측' 한 것은 아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빨아들이는 천체이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 없다. 블랙홀은 빨려 들어가는 별의 잔해 같은 물질에서 나오는 자외선, 엑스선 등으로 간접적으로 관측한다. 이런 방법으로 처음 발견된 블랙홀 후보 천체가 백조자리 엑스선 천체인 '백조자리 X-1'이다.

지금까지의 블랙홀 관측은 주변의 별이나 물질을 대부분 빨아들이 뒤 사그라지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네이처에 실린 블랙홀 관측은 달랐다. 연구팀에 따르면 1990년 이후로 엑스선 영역의 밝기가 최소 1만 배 커졌으며, 2010년 초 이후로는 100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초대형블랙홀이 별을 빨아들이기 시작한 첫 순간의 모습을 관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초대형블랙홀은 어떻게 생길까? 일반적 인 별 크기만한 블랙홀은 무거운 별이 최후를 맞을 때 생긴다. 별은 내부의 핵융합 에너지에 의한 압력 때문에 팽창하려는 힘과 가운데로 수축하려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핵융합 연료가 다 떨어지면 팽창하는 힘보다 중력이 커진다. 결국 중력 때문에 별은 스스로 붕괴하며 무거운 것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는다.

태양 크기 정도의 별은 백색왜성으로 최후를 맞는다. 백색왜성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뤄져 있으며, 아주 고밀도로 압축돼 있다. 초신성이 돼 외부 껍질이 날아가 뒤 남은 질량이 태양의 1.44배 이상인 별은 중성자성이



된다. 중성자성은 백색왜성보다도 더 압축된 별이다. 그중에서도 남은 중심부 질량이 태양의 3~4배에 달하는 별은 최후를 맞아 블랙홀이 된다. 이런 블랙홀은 때때로 빠른 속도로 우주를 돌아다니며 주위의 별과 행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일단 블랙홀이 되면 주위의 물질을 빨아들이며 점점 물질을 키울 수 있다. 이번에 관측된 블랙홀같은 은하 중심의 초대형블랙홀은 질량이 태양의 수백에서 수억 배다. 1999년 발사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찬드라엑스선우주망원경은 구상성단 중심부에서 질량이 일반적인 별 정도 되는 블랙홀과 초대형블랙홀의 중간 정도인 블랙홀을 발견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성과를 올렸다. 처음에는 별 정도였

던 블랙홀이 물질을 키워 은하 중심의 초대형 블랙홀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보통 은하보다 굉장히 밝은 활동은하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천이 초대형블랙홀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은하의 중심에도 초대형블랙홀이 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초대형블랙홀의 질량이 태양의 약 400배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 그중의 하나가 '호킹 복사'다. 1975년 스티븐 호킹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알려진 블랙홀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방출하며 서서히 증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방출하는 빛이 호킹 복사다. '블랙홀은 검은색이 아니다'는 말은 여기서 나왔

지만, 호킹 복사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

호킹이 자신이 주장했던 이론을 수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호킹은 블랙홀에서 빛만 나올 뿐 빨아들였던 물질의 정보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물질의 정보란 물질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 같은 물리량을 말한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가 완전히 소멸하는 현상은 불가능하다. 2004년 호킹은 30년 가까이 주장했던 내용을 수정해 블랙홀이 빨아들였던 물질의 정보도 통계적 형태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몇 년 전에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거대강입자속기(LHC) 실험에서 블랙홀이 생겨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와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물론 LHC 실험에서 마이크로블랙홀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블랙홀이 지구를 먹어치울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하다. 앞서 말한 호킹 복사로 인해 마이크로블랙홀은 수명이 아주 짧아 생기는 즉시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주 초기에 밀도가 아주 높았을 무렵에 이와 같은 마이크로블랙홀이 많았을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홀을 짚고 넘어가자.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반대 개념으로 모든 것을 빨아내는 이론상의 존재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잇는 웜홀을 이용해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은 SF소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홀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인체가 화이트홀이 발견될지, 정말로 웜홀을 통과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아주아주 오래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고효관(『과학동아』 기자)

여인천하

18세기 조선여인은 과연 순종적이었을까?

홀로서기를 선언한 김호연재 (浩然齋 1681~1722)

19세에 혼인하여 42세에 사망하기까지 20여년 동안의 결혼생활이 그녀에게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 달콤한 신혼은 커녕, 남편 송요화소대헌(小大軒, 1682~1764)은 결혼 생활 내내 밖으로 돌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내를 홀로 남겨두었다. 남편이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한시를 직접 읽고 쓸 줄 아는, 재주 많은 그녀로서는 명문가 집안이라고 믿고 결혼한 남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을 것이다. 남편이 첩을 좋아해도 부인은 투기를 해서 안된다고 가르쳐서 당시 사대부 정서로는 부인이 참아야 하는 것이 미덕이었을 테지만 호연재는 이에 직격탄을 맞았다.

남편이 행실을 뒤고 턱을 송상할 수 있다면 여자 평생의 즐거움이 이보다 더 될 수는 없다. 불행하여 그 행실을 조심하지 않고 여색을 좋아하여 나가 놀면 반드시 창녀의 집에서 살고 집안에 있어도 또한 주색을 끊지 않아서 어느새 황음무도한 자경에 이른 다. 그렇게 되면 타고난 성품이 비록 본래 현명한 사람이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착한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재인용 호연재가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쓴 [자경편 自警篇]에서는 투기를 경계하며 부인의 인내심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폐덕을 비판하는 글이 나온다. 조선시대 여성을 가르치기 위한 부덕(婦德)에 관한 교훈서들이 대부분 제3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순종과 희생을 강요한 것에 비하면 호연재의 자경편은 남편의 바람기를 지켜보아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쓰여졌다. 남편이 자기 소인을 다하지 못하는 데 부인에게만 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부 상호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다. 호연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축첩을 당

연시키는 남편의 여인들을 '적국(敵國)'으로 표현하며 '부부의 은혜가 막중하지만 당신이 이미 나를 저버렸으니, 나 또한 어찌 구구한 사적인 정(情)을 보전하겠는가?' 하며 지아비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노라'고 독립선언을 한다.

17세기 이후 주자학의 논리가 강화되면서 여성에게는 더 많은 규제가 가해졌던 조선사회에 이런 도발적인 여성의 주장이 대놓고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론의 수장인 송시열(1607~1689) 자신도 자신의 딸에게 써준 제녀서(敍女書)에서 투기를 경계하며 '남편이 100명의 첩을 두어도 본체만체하고 첩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고 더욱 공경하여라.'고 가르쳤고 사대부 여성들은 그것을 턱으로 받고 살던 시대였다. 21세기 양성평등의 시대에 와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녀의 주장은 '호연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인의 거두로 활약했던 송준길(1606~1672) 선생의 증손 며느리였던 그녀는 당대에도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아 시를 생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기도 했다. 그 후 잊혀졌던 그녀의 존재는 최근 대한동문당 고재(高在) 박에서 그녀의 문집들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가부장 사회로 모든 여성들이 숨죽이며 순종하고 살았을 것 같은 사대부 유력가 집안에서 호연재같은 비판적 지성을 가진 인물이 존재했고 그녀의 글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아무리 철거지역과 삼중지도의 제도 가 억누른다 해도 이름 비슷한 여성들은 자신의 주장에 당당히 남겼으며, 이는 또 다른 여성들-며느리와 딸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었다. 이것이 어쩌면 역사의 건강성인지 모른다. 최성경 / 『왕을 낳은 후궁들』 저자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지금은 인문학적 정신이 필요할 때

『철학이 필요한 시간』/강신주/사계절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어머니는 아이가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법관이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다. 한편 아이의 마음 한 구석엔 영화감독에 대한 꿈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꼭꼭 눌러보지만 쉽지 않다. 과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다. 어머니

에게 아이는, 혹은 아이에게 어머니는 타자가 된다. 어머니가 아이의 욕망을 자신을 맞추면 안 된다. 반대로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에 자신을 맞추어도 안 된다.

철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몹서러지는 학생들이 많다. 취업준비하기에도 바쁘게 무슨 철학이 필요하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사실 의식하지 못할 뿐, 날마다 철학하며 살고 있다. 그동안 복자들 과 대중적으로 호응받은 철학자 강신주는 이 책을 통해 인문학적 정신의 힘을 강조한다. 진통제를 주는 데 만족하는 거짓된 인문학을 벗어나, 인간 자신의 생활과 노력으로 직면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참다운 인문학적 정신을 기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철학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사소한 마찰이 증가하고, 이기주의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인문학적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기주의의 만연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풍조를 낳고, 관계의 단절을 야기한다. 개인의 왜곡된 자아는 세상을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좌절하게 한다. 강신주가 철학의 필요성, 인문학적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철학이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고민이 들 때 철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삶의 문제를 당당하게 돌파해보자.

책이 전해주는 작지만 커다란 희망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메리 앤 셰퍼, 애니 배로스/이덴슬리벨



박인주 필명 '침묵자'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gotozoo3)

라.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이란 책을 떠올린다.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편지로만 이루어진 이 소설은 편지에 대한 동경과 추억을 되살리게 해 흥분했다. 하지만 결코 그게 이 책의 전부

는 아니다. 책이 전하는 것은 '책의 힘'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채널제도의 건지 섬이다. 이름도 낯선 건지 섬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5년 동안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섬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섬을 배경으로 나치정권의 지배아래에서 책과 문학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그려낸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자유는 책을 읽는 자유이다. 『폭풍의

인력, 『셰익스피어 전집』, 『세네카 서간집』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을 통해서 건지 섬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간다.

책은 종종 위안과 희망을 준다. 그리고 때로는 힘겨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소소한 책임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보면 저항이라는 것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흔히 가을은 책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물론 이 말이 워낙 가을에 책이 안 팔려서 지어낸 상술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의 힘을 느낄 수 있다면 지어낸 말이란 아니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맞을 것이다. 율가를 나는 이 책으로 그대에게 편지를 대신해본다.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2011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9월 5일(월) ~ 2011년 12월 9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논문,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 (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 (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예술과 생활용품은 종이 한 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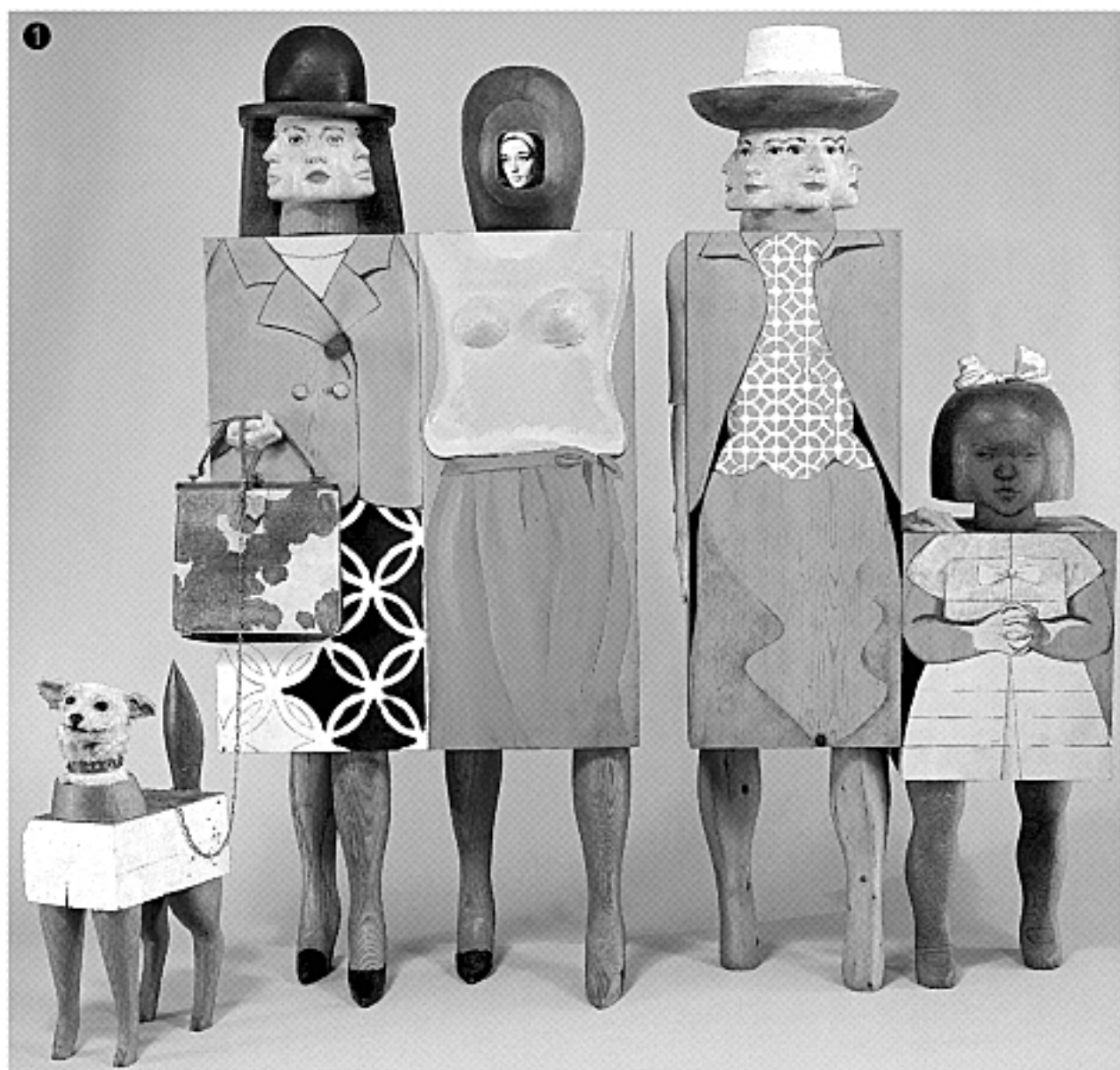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미술은 아름다운 대상을 그려서 새로운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미술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방을 전시물이라고 가져다 놓는가 하면, 통조림 이미지를 병렬해서 그림을 만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을 소재로 사용한다. 과연 무엇이 미국 미술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월 '이것이 미국미술이다'전을 찾았다.

▲흔한 것에서 의미를 찾다

관람을 시작하면 첫 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전시실의 주제는 '아메리칸 아이콘과 소비문화'이다. 이 전시실은 상표, 생활용품, 대중스타 등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가득하다. 다시 말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작품화 한 것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이다.

전시실의 작품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작품들이 만들어진 때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발전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상황이었다. 여자가 생긴 미국인들은 소비문화를 발달시켰고, 이것은 다양한 상표와 물건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와 상품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예술가들은 거리에 널려있는 일상용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소비와 상품은 흔해 빠진 것이었기에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이런 흐름을 가장 잘 잡아낸 아티스트는 앤디워홀이었다. 그는 흔한 이미지 자체를 극대화했다. 전시실 벽면에 캠프벨스 통조림들을 병렬한 그의 작품은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실제 상품처럼 그려진 통조림 캔을 병렬시켜 상품이 슈퍼마켓에 진열된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보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공허하고 허무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공허함에서 자본주의의 무미건조함과 메마른 정서를 찾을 수 있다. 단순히 일상용품의 '흔함'을 극



대화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정서를 보는 사람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앤디워홀 이외에 폴 웨셀만,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창조해냈다. 이런 작품들은 단순한 미적 측면보다도 자본주의의 병폐라는 거대담론을 흔해빠진 것들에서 가져왔다는 의의를 지닌다.

▲뒤상과 오브제

이 전시에 사용된 작품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오브제'이다. 하나의 물건이 본래 발휘하던 기능을 잃고 관람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상용품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서 미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밖에서 쓰던 자전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전시장에 가져다 놓기만 해도 그 자전거는 오브제가 되는 것이다.

오브제의 등장은 1917년에 프랑스의 한 미술가가 한 월공소의 전시판매장에서 남

용 소변기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미술가의 이름은 마르셀 뒤샹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입한 그 물건을 단순한 소변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소변기는 미국이 개인의 위생과 편의를 극도로 추구하면서 얻어진 결실이며, 하나의 예술이었다. 뒤샹은 그 소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 독립미술가 협회가 주최하는 미술전에 출품했다. 그 작품은 전시가 거절되었지만, 미술가들은 그 작품 하나에 큰 충격을 받았다. 오브제는 새로운 대상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일상적인 대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을 찾아내는 것을 '레디메이드'라고 명명했다. 이후 레디메이드는 예술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브제의 새로운 활용

전시 첫 번째 주제자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 같은 거대 담론에 치우쳐있었다면, 두 번째 주제인 '오브제와 정체성'

- ① 마리솔, 여인과 강아지, 1964, © Marisol / VAGA, NY and SACK, Seoul, 2011
- ② 앤디워홀, 토마토, 1968,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③ 샌디 스코글랜드, 점시에 원두콩, 1978, ©Sandy Skoglund, 2011

은 인간의 내면을 실현 작품들을 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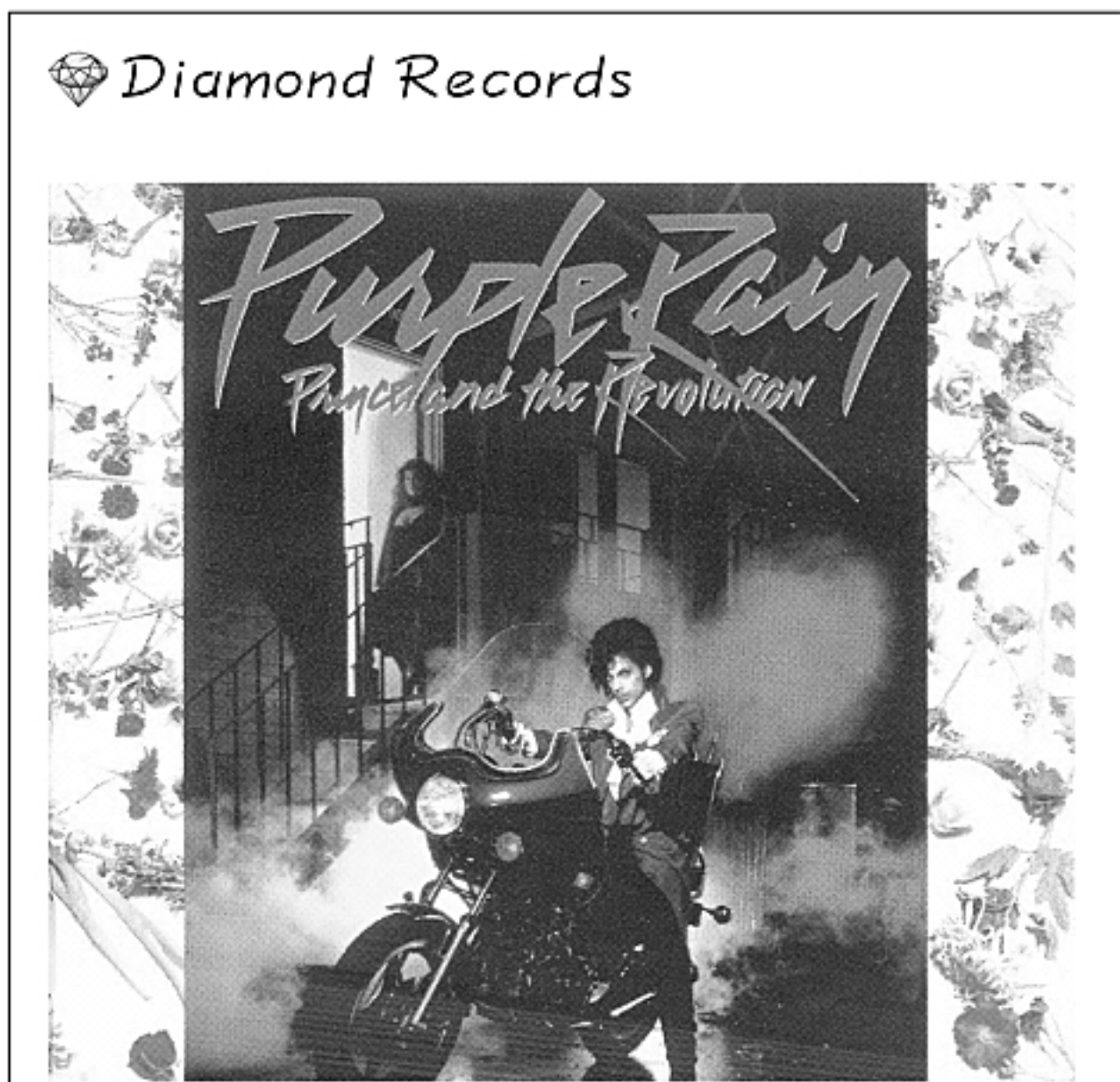
단적인 예로 마리솔 에스코바의 여인과 강아지를 보면, 앞의 전시실에서 상품을 주제로 했던 것과 달리 인간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여인들의 얼굴인데, 여러 개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음에도 표정은 무심한 표정 한 가지뿐이다. 중산층에 강아지를 기를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편이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만 느끼는 여인의 모습을 오브제로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에 주목하는 오브제가 있는 반면, 더 나아가 인간의 내면과 초현실적인 부분까지 오브제로 표현하는 작품들도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오브제와 인식'에서 이런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많이 이용한다. 전시실에 걸린 만 레이의 행운이나 샌디 스코글랜드의 점시에 원두콩, 지크 바란의 계량컵 같은 작품들은 이런 착시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착시현상 때문에 사실적인 표현이 주는 현실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지크 바란의 계량컵을 보면, 이미지 자체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자의 윤곽선처럼 떨어져있는 물 때문에 평면에서 입체적인 공간이 느껴진다. 그 위에 물이 담긴 계량컵을 보면 평면과 입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된다.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착시현상은 시공간을 비트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공간을 느끼게 해준다.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해 착각을 야기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주제들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것이 미국미술이다' 전에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부터 인간의 인식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오브제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오브제로 대표되는 미국미술의 작품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깊이를 느끼기 힘들지만,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 이 새로운 결론이 미래에 대한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가능성일 수도 있기에 오브제라는 대상이 단순한 사물에 그치지 않고 예술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극과 외설의 미학

《Purple Rain(심홍색 비)》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외국 음악저널 들이나, 음악저널에서는 때때로 '역사상 최고의 음반 100선' 등의 주제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보통 이런 조사에는 '정규 앨범'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예외적으로 거의 때면 올라가는 '비정규 앨범'이 바로 프린스의 <Purple Rain(심홍색 비)>이다.

프린스는 1976년에 데뷔한 미국의 아티스트이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천재 싱어 송라이터라 정평이 난 가수이다. 노골적으로 자극성을 드러내는 특이한 곡의 구성으로 본인의 색깔을 완벽하게 확립하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국의 음악저널 '롤링스톤지'에서는 프린스의 음악저널 '롤링스톤지'에 28위로 실어놓았다. 그만큼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그에게 <Purple Rain>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앨범이었다. 본래 이 음반은 1984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 O.S.T로 발매된 앨범이었다. 프린스는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으나, 영화 자체는 흥행하지 못했고 평단에서도 B급 영화라는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운드트랙만큼 뛰어난 작품성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미국에서만 천만 장 이상 팔리는 쾌거를 이뤘었다.

평론가들이 프린스를 이룰 때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대척점에 있는 가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가 부드러움과 사랑의 이미지라면, 프린스의 이미지는 난잡함과 외설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외설적인 이미지는 그의 가사에서 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건전함을 내세우는 보수 단체들에게 저급한 음악으로 몰려 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Purple Rain>에서는 그의 외설적인 가사가 다른 작품들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롤링스톤지'에서는 다른 작품보다 외설적인 측면 비율을 줄인 것이 더 많은 대중적 성공을 이루는데 일조했다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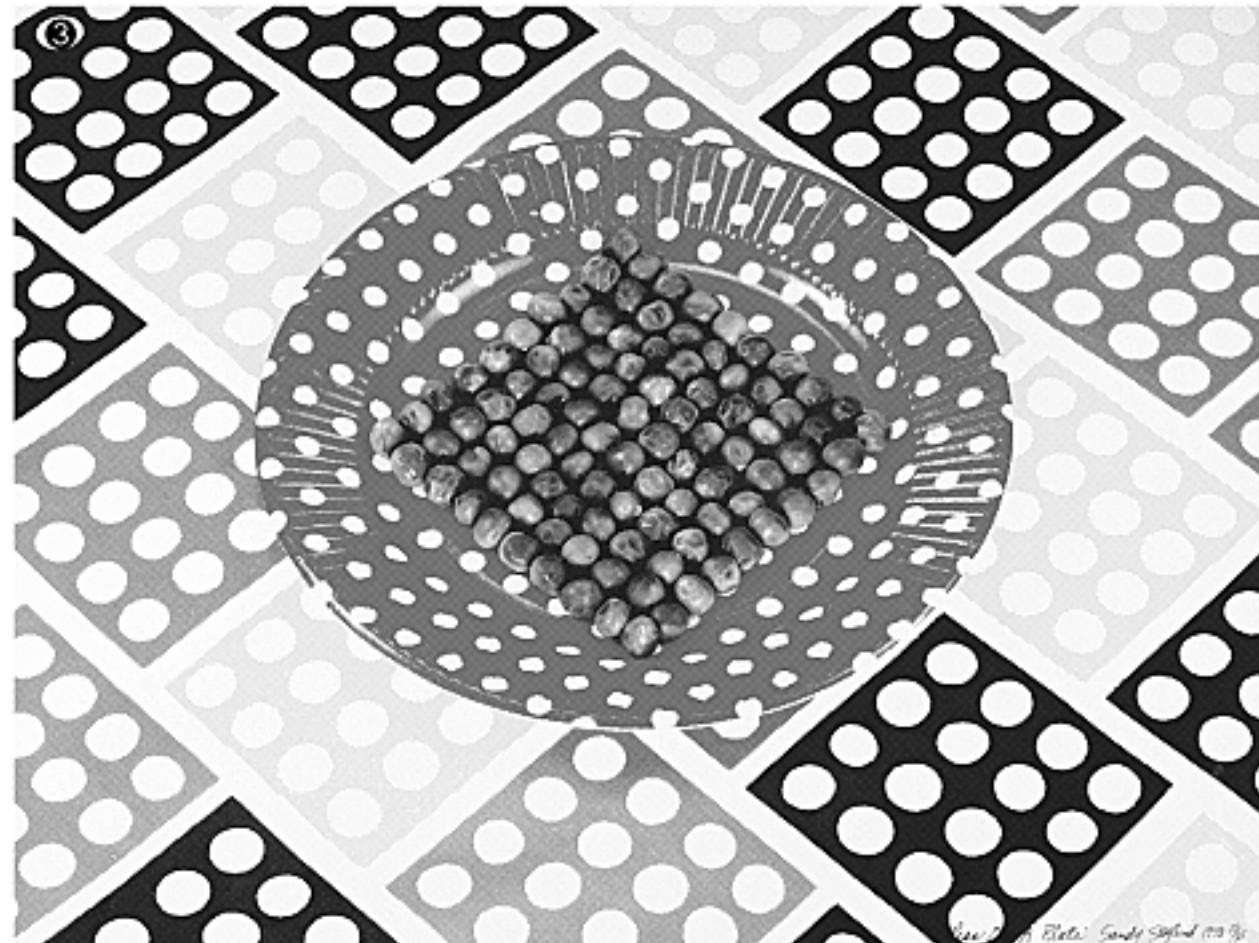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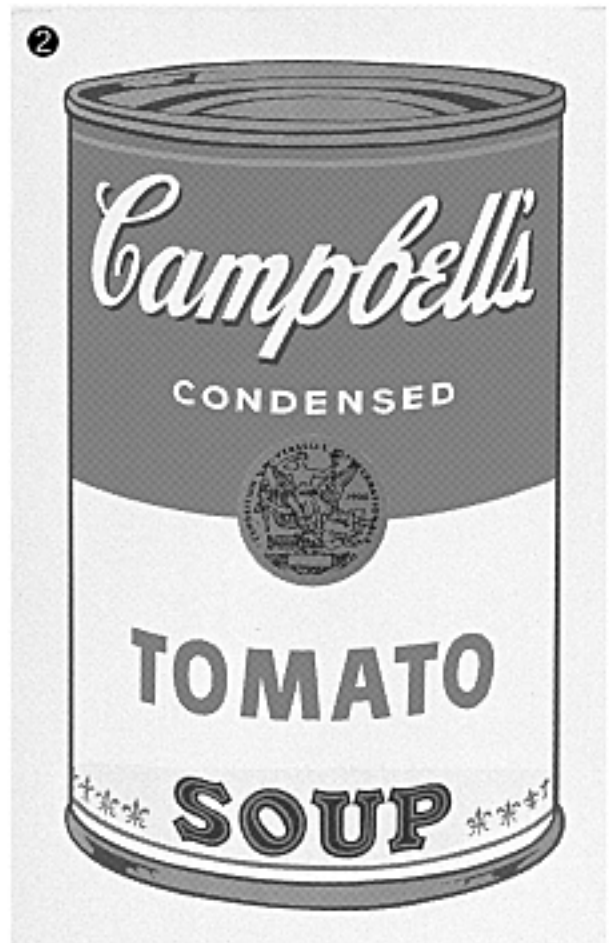
이처럼 가사의 변화가 앨범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곡의 구성에 있었다. 당시의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스릴러)>가 아직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흑인 가수들은 마이클 잭슨의 행보를 따라 '백인음악 같은 흑인음악'을 바탕으로 활동했다. 프린스 역시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따랐지만, 동시에 곡에 파격적인 실험들을 가미했다.

예를 들어 'When Doves Cry(비둘기가 울 때)'의 경우 감률하다 못해 폭력적인 기타리프를 가미함과 동시에 곡에서 베이스 라인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구성을 보여 주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고 동시에 앨범 최고의 명곡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음악적 실험의 성공으로 프린스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판계의 천왕성을 음악성으로 뛰어넘은 진정한 천재로 평가받았다. 어떤 평론가들은 기타를 전면에서 앞세운 곡의 구성 때문에 프린스에게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모습을 보았다고 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파격적인 실험은 프린스가 본래 추구하는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이미지와도 잘 부합되어, 큰 성공을 이루었다. 프린스의 이미지는 난잡함과 외설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외설적인 이미지는 그의 가사에서 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건전함을 내세우는 보수 단체들에게 저급한 음악으로 몰려 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Purple Rain>에서는 그의 외설적인 가사가 다른 작품들처럼 노골적으로



음식傳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 - 자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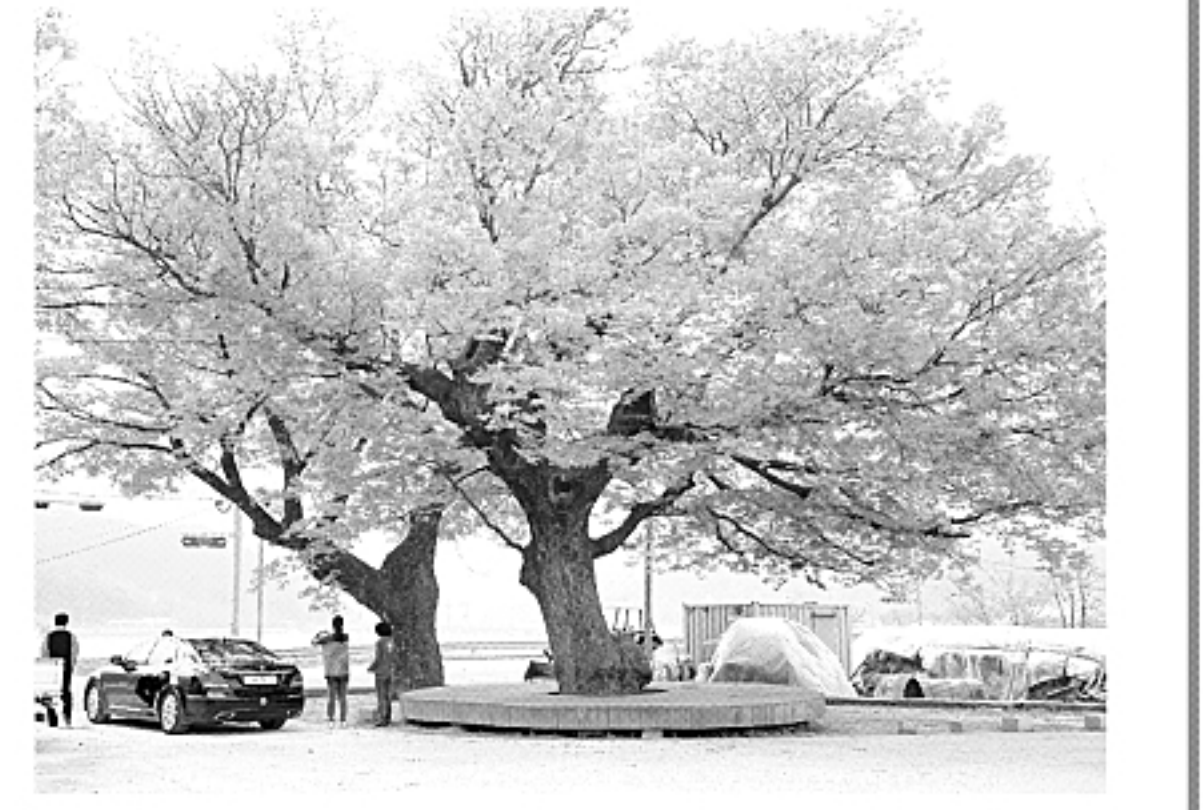


자장면이라는 음식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장면은 '자장면'으로만 표기해왔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 'ㅈ'은 된소리로 표기할 수 없다는 외래어 표기법으로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장면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못하는 어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립국어원의 판정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시인 안도현 씨는 맞춤법 때문에 추억을 담은 단어인 '짜장면'을 쓰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작품에서는 '자장면'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논란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지난날 31일에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자장면'과 '짜장면'은 둘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자장면은 표기법 뿐 아니라 탄생과 얽힌 다양한 설들이 존재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공화춘'이라는 음식점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설들은 모두 낭설로 판명되었다. 지금은 중국 산둥반도의 자장면이 한국에 정착해 자장면이 되었고, 특정 음식점에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천동지에서 서서히 개량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자장면이 자장면으로 정착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바로 화교들이었다. 1940년대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중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왔다. 이후 공산당의 승리로 내전이 끝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를 단절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사이에 놓여 오갈 데 없어진 화교들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런 화교들에게 당시의 한국은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교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화교들은 고향인 중국의 음식을 개량해 한국에서 파는

길을 택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의 음식은 한국인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자장면도 그런 음식 중 하나였다. 자장면은 장을 태운 것에 국수를 비비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별로 없었다.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화교들은 전분과 육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중국의 춘장은 향은 좋았지만 너무 짠맛이 강했기 때문에 먹기 힘든 음식으로 취급되었다. 춘장의 짠맛을 중화시키고 단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캐러멜이 섞인 지금의 한국식 춘장이 나오게 되었다. 본래 갈색 빛이 났던 춘장이 검은색이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의 자장면이 탄생되었다. 이후 자장면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화교들의 삶을 책임지는 기둥이 되었다. 우리에게 자장면은 단순히 맛으로 먹는 음식에 지나지 않지만, 화교들에게는 생존의 노력이었었던 것이다.

사진이야기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저희 고모댁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어릴 적 크게 만 느껴졌던 운동장을 어른이 되어 다시 가 보면 부쩍 작아져버린 느낌을 받으실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큰 나무입니다. 수십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도 나무는 저에겐 큰 나무입니다.

김경태(정동 2)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승례문 화재 고 후...

지난 2008년 2월 10일 승례문에 불이 붙었다. 처음에 연기로 시작한 불은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고, 지붕을 다 잡아먹고 난 뒤에야 진화되었다.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한 남자의 방화였다. 단순한 화물이기에 국보가 타버렸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퇴했다. 승례문이 불타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 서울 시민들은 죄인을 자칭하여 석고대죄를 지내기도 했고, 불탄 승례문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얹어두기도 했다. 이후로도 승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와 복구 작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승례문은 아직도 복원작업 중에 있다. 4년이 다 되어가는 승례문 화재와 복원 과정에 대해 언론과 여론은 잠잠하다. 과연 사람들은 아직도 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복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안고 지난 10일 복원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복원 중인 승례문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승례문 복원은 화재 다음날이었던 2월 12일부터 화재 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가림막의 높이는 15미터에 달해 고층 건물에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승례문 화재 현장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이후 가림막 설치가 단순한 눈가리개가 아닌 비단이 쏟아지면서, 투명한 관람창이 설치되었고, 가림막이 울타리로 교체되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주말마다 현장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울타리에는 승례문의 변천과정, 화재 경위, 복원 예상 조감도, 복원 절차 등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이번 복원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공사과정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공사 현장에는 관심을 가지고 복원작업을 지켜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도로 위에 차들만이 빠른 속도로 현장 옆을 지나갈 뿐이었다.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승례문 복원현장 둘레를 다 돌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 결국 인터뷰를 포기해야 했다.

복원현장 역시 아주 한산했다. 지하철 안전과 빠른 복원을 위한 지반공사가 지하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문제는 복원공사와 관련 없이 현장 보존을 해야 하는 현장관리 인원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울타리 안쪽은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었지만, 울타리 바깥쪽은 상황이 심각했다.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했고,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서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심지어 복원현장 안내판에는 인분이 묻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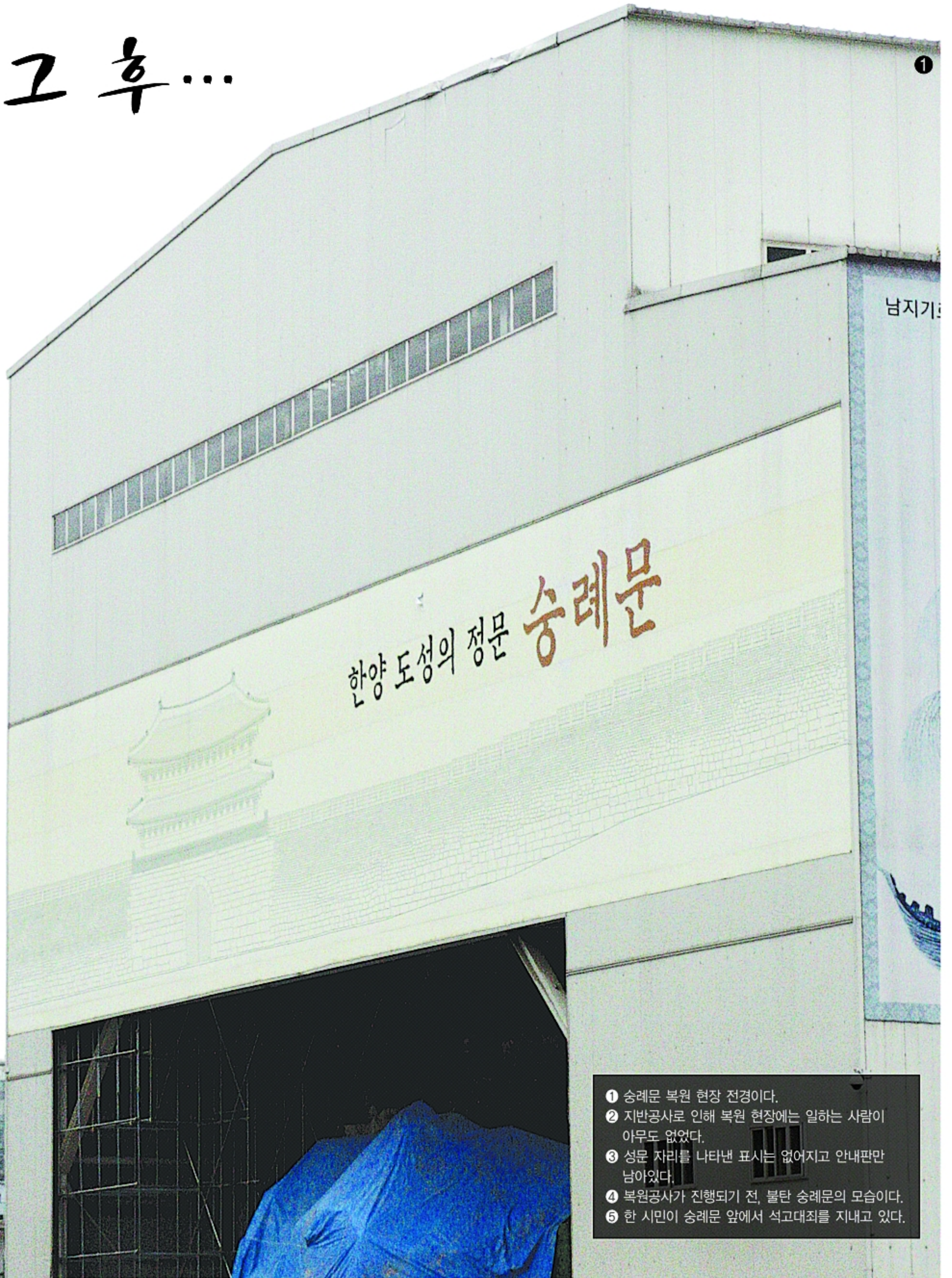
또, 성곽이 있었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도로 위에 표시한 승례문 성곽 표시는 거의 지워지고 없는 상태였다. 성곽을 기념하기 위해 성곽이 있었던 자리를 도로위에 표시했다는 안내판만이 그 자리에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승례문은 전체 복원에 적어도 5년은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3년째인 지금 관리 상황이 이런 지경이라면, 5년 좀 되었을 때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물론 승례문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보초를 선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지 모르다. 하지만 현장 감독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청결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복원현장에는 '한국의 대문'이라는 이름을 크게 걸어놓고 다른 한 쪽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대낮부터 복원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외국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안내판 앞에 묻어있는 인분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물론 밖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복원작업 자체에 박차를 가해야하겠지만, 승례문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복원작업 자체에 대한 관리와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고작 3년 반 만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 더럽혀진 승례문을 위해 우리는 또다시 석고대죄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① 승례문 복원 현장 전경이다.
- ② 지반공사로 인해 복원 현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③ 성문 자리를 나타낸 표시는 없어지고 안내판만 남아있다.
- ④ 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전, 불탄 승례문의 모습이다.
- ⑤ 한 시민이 승례문 앞에서 석고대죄를 지내고 있다.

